

 재정경제부	보도자료		•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• 고품질 정책으로 신장받는 재경부
	보도일시	2006.08.11(금) 조간부터	
생 산 일	2006.8.10(목)	생산부서	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
담당과장	유병서 (☎ 2150-2650)	담 당 자	이귀웅 (☎ 2150-2653)

제목: 우리나라 채권시장, 인도네시아에서 벤치마킹한다.

인니는 한국 채권시장을 자국의 채권시장 발전모델로 채택
 기로 하고, 양국 재경부는 지원방안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

- ① 인니 재무부, 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(Project Management Office)의 「채권시장 발전 로드맵」 작성을 지원
- ② 국채담당자, 거래소 전문가를 8.11(금)~15(화) 파견, 경험을 전달
 * 한국의 채권시장 활성화 경험을 영문책자로 정리, 교재로 활용
- ③ 인니 실무자 4명에 대한 채권시장 연수를 8.7일부터 3주간 실시
 * 여행경비와 체재비는 세계은행의 지원 아래 인니 정부가 부담
- ④ 인니 재무부, 거래소 등 12명 자산유동화 관련 단기연수 실시
 * 경비는 인니정부 부담, 재경부·금감원, KAMCO·거래소 등 방문
- ⑤ 채권시장 거래 현장에 관한 단기 초청연수 실시 (9월중 예정)

인도네시아가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게 된 것은

- '05.8~'06.3월 재경부의 경제개발경험 전수사업*(Knowledge Sharing Project)의 권고("채권시장 발전방안" 등 5개 분야)를 수용하고,
 * 우리 경제개발 경험을 토대로 경험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경제개발 컨설팅을 제공, 경제발전을 지원함으로써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사업
- 지난 3월 印尼 재무장관이 "채권시장 발전"에 관한 후속사업 지원을 한덕수 전부총리에게 요청(서한)하여 성사된 것이 계기

채권시장 시스템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국채
 시장을 위시한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데 기인

- 그 결과,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, 국채전자거래 시스템 구축, 20년 만기 국채 발행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우리 국채시장이 단기간에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음

- ※ 특히, 인니정부는 국채전문딜러제도, 전자거래 시스템에 많은 관심

- 또한, 채권 시가평가제도 도입, 신용평가기능 강화, 규제·감독 제도의 선진화 등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도 성과

- 금번 인도네시아와의 채권시장 협력은 우리나라 금융인프라 해외수출과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

- 재경부는 우리의 경제·사회 개발경험 전수사업이 다른 원조국에 비해 강점을 지닌 분야인 점을 감안, 앞으로도 개도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

- ※ 여타 경제개발경험 전수사업의 주요성과

- 베트남 : 수출주도형 경제발전과 수출입은행 설립 제안, 이를 수용하여 우리 輸銀을 모델로 베트남 輸銀 설립 ('06년)
- 우즈베크 : 우즈베크형 '수출자유지역' 설립을 제안, 우즈베크 정부는 이의 구체화를 위한 양국 합동 워킹그룹 구성을 제의 ('06년)
- 터키 :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 경험과 지속공유사업이 '07년 개시 9차 경제개발 7개년계획의 바탕이 됨 (국가기획원 장관 언급)

< 참고자료 >

1. 인니 PMO(Project Management Office)의 구성배경과 주요내용
2. 우리나라의 주요지원 내용 ('06.8~11월)
3. 인도네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('06.3월 KSP 최종보고회)
4. 對개도국 경제개발경험 전수사업 개요

< 참 고 1 >

인니 PMO(Project Management Office) 구성배경과 주요내용

(’06.3.29 인니 재무부의 보도자료 내용)

1. 구성배경

- 금융산업의 트렌드가 ‘은행중심’으로부터 보다 투명하고 저위험 저비용의 ‘자본시장 중심’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
- 인니는 채권시장 발전을 통하여 금융시장이 보다 다양하고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
- 한국 지식공유사업의 권고를 따라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(’07.6월까지), 이를 위해 범부처 PMO를 구성
- ※ 인니는 「자본시장발전 5개년계획」을 추진중이며, 지식공유사업 계기 핵심 분야로 채권시장을 설정, ’07.6월까지 로드맵을 수립·시행할 계획

2. 지식공유사업의 인니 채권시장 분석내용

- ① 인니 채권시장에 현존하는 거래장벽(거래정보, 참가기관등)을 제거, 시장참가자에의 올바른 유인 제공을 위한 시장개편 필요
- ② 정부채권의 가격형성 기능 부재, 거래정보 유통기능 부재 등을 극복하기 위한 채권시장의 가격 메카니즘 확립 필요
- ③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이 저비용과 저위험으로 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거래 시스템 확립

3. 인도네시아의 채권시장 활성화 전략

- ① 국채전문딜러제도(Primary Dealer System)의 시행
- ② 거래 신고 의무를 포함하는 가격 예시 메커니즘 (price discovery mechanism) 설립, 국공채 가격기준을 제시할 가격기구(Bond Pricing Agency)의 창설
- ③ 딜러간 거래 (Inter-Dealer Trading)의 기반이 되고, 유통시장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자 거래 시스템의 개발

< 참 고 2 >

우리나라의 주요 지원내용 ('06.8~11월)

① 한국 재경부-인니 재무부간 MOU 서명

- 서명 일시·장소 : 8.11(금), 인니 자카르타 재무부
- 서명 : 재경부 개발전략심의관 - 금융경제연구 국제협력국장
- 주요내용 : 재경부가 지원할 내용과 협력방식·기간 등 명시

② 현지 컨설팅 실시 (8월, 10월 2회실시 예정)

- 일시·장소 : 8.11(금) ~ 15(화), 인니 자카르타
- 주요참석 기관 : 재경부 경제협력국·국고국, 증권거래소 등
- 주요내용 : '00년 이후 국채시장 활성화 경험을 책자로 정리, 배포하고 설명후 질의답변

③ 채권시장 관련 재무부 공무원 인턴쉽 연수

- 일시 : 8.7일부터 3주간 (여행·체재비는 세계은행이 부담)
- 연수내용 : 재경부·한은·감독원 등을 방문, 채권시장 발전 방안 관련 자료수집과 전문지식 습득

* 사무실은 증권거래소에 설치

④ 자산유동화 관련 인니 재무부, 거래소 요원 단기연수

- 일시 : 8.21일부터 1주간 (여행·체재비는 인니 정부 부담)
- 연수내용 :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성공사례, 시장제도 연구
- ※ 재경부, 금감원, KAMCO, 주택금융공사, 거래소 등 방문하여 면담, 자료수집 등 실시

⑤ 인니 PMO 요원 단기 초청연수 (9월중 예정)

- 우리나라 거래소, 채권거래 현장에 관한 연수 실시

< 참 고 3 >

인도네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('06.3월 KSP 최종보고회)

1. 채권시장에 관한 컨설팅의 배경·목적

- 한국 채권시장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印尼 채권시장의 발전방향 청사진을 제시*

* (주)메인스트림이 「지식공유사업」 컨설턴트로 참여, 인니 재무부 내 실무기관과 6개월간('05.10~'06.3) 공동작업

2. 印尼 채권시장의 문제점

- 거래정보 실시간 공개 등 정보관리 부재, 그 결과 시장 투명성 저하
- 채권시장 조성 장치 미비,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미구축, 채권가격 평가기준 미비 등

3. 인도네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

- 선진 채권시장 구축을 위해 시장정보, 거래 중개기능, 감독·규제 효율화 및 각 부문 유기적 연결 시스템 구축 필요

구분	단기 과제	장기 과제
시장 정보	- 채권가격 평가체제 구축 - 채권시장 Data의 통합저장관리	- 채권시장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
거래 중개기능	- 국채시장의 활성화	- 채권시장 거래 인프라확충
규제감독기능	-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조	- 통합 감독기구 설립

4. 향후 추진과제

-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부내 실행기구를 설치하고,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

< 참 고 4 >

對개도국 경제개발경험 전수사업 개요

1. 사업취지

- 경험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토대로 종합적 경제개발 컨설팅을 제공, 경제발전을 지원
- 사업과정에서 개도국 경제정책 정보를 수집·전파하고,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

2. 사업추진 방식

- 연간 2개의 협력유망 개도국에 대해 재경부가 용역을 발주하고 KDI가 수행
- 주요내용 : 정책담당자 연수, 보고회, 전파세미나, 고위급 정책자문, 보고서 제출 등

3. 추진실적

- '04~'05년 : 베트남, 우즈베키스탄
 - 베트남 : 공기업 개혁, WTO 가입추진, 輸銀설립 등 지원
 - 우즈베크 : 수출자유지역, 제조업 육성전략, WTO 가입 등 지원
- '05~'06년 : 터키, 인도네시아
 - 터키 : 민간부문 발전, 기술개발과 혁신, 인력개발 전략 등
 - 인니 : 채권시장 육성, 조기경보시스템, 수출 中소육성 등
- '06~'07년 : 캄보디아, 알제리 (수요조사 진행중)